

INTERVIEW

베를린에 좋은 이웃이 산다

두 창작자가 만들어낸 흥미진진한 작품들은 사람들을 사유의 숲으로 몰아넣는다.
베를린에 있는 철용성 같은 그들의 아지트를 찾았다.

PHOTOGRAPHY ANDREAS MEICHSNER
EDITOR KANG HYE YOUNG

마이클 엘름그린 Micheal Elmgreen & 잉가 드라그셋 Ingar Dragset의 작업은 그 이름의 연결 방식에서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 펠릭스 가타리 Félix Guattari를 떠올리게 한다. 이름 사이에 들어간 '&'이라는 연결 기호로 묶여 있는 두 창작자는 그 결과물이 특정한 누구의 것이라 말하기 어렵도록 스스로를 정의했다. 인터뷰 역시 두 명이 답했지만 마치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은 답변이었다. 모든 창작물은 둘 사이를 잇는 기호 '&'처럼 그 '사이'에서 발생된다. '생성'은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말한 들뢰즈&가타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순간이다. '사이'가 주는 긍정 혹은 '차이'의 발견은 들뢰즈에게도 현재의 우리에게도 분명한 격식과 의식을 갖게 만든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내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의 무대에서도 이 같은 장면을 찾을 수 있다. 서로 연결된 분석자와 피분석자 두 명이 마주 보고 있다. 인간의 무의식은 자신의 의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 프로이트는 상대와의 무한한 대화와 같은 충분한 예열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세기 철학자 미하일 바흐친 Mikhail Bakhtin 역시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다성적 목소리에서 발견하고 있다. 미르셀 뒤샹 Marcel Duchamp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한 발표를 통해 더 이상 작품의 의미를 생산하는 것은 작가 혼자만이 아니라, 관객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며 "관객은 작품의 창조적 과정에 자신만의 기여를 한다"(1957년)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인

간들 사이로 또는 인간 밖으로 길게 만들어져 연결되어 있는 '관계의 선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다시 들뢰즈 & 가타리의 말로 귀결된다. 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로 소설가 모리스 블랑쇼 Maurice Blanchot가 새로운 독자 행동 양식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즉 '비갈과의 새로운 관계'로 독자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인간 내면에 자리한 사유를 '관계'라는 끈으로 비갈세상과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들뢰즈 & 가타리. 엘름그린 & 드라그셋 역시 베를린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페양수 펌프장(지금은 스튜디오가 된)에서 긴 예열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결국 '사이'를 위해 비갈으로 향하는 작품을 내놓으며 관계라는 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둘의 대화를 통해 그 사유의 다양한 단서들을 짐작할 수 있다.

곧 개막하는 이스탄불 비엔날레에서 큐레이터를 맡았는데 타이틀이 '좋은 이웃 A Good Neighbor'이죠. '잡'이라는 공간과 이를 둘러싼 주변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짐작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나요?

마이클 엘름그린 이하 엘 이스탄불 비엔날레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내용은 한 개인이 집이나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베니스에서 전시한 '수집가들 Collectors'도 그랬고, 빅토리아 & 앨버트 미술관에서 선보인 '내일 Tomorrow'도 그랬어요. 특히 '내일'은 미술관 자체를 거대한 개인의 아파트로 완벽히 변신시켜 미술관 밖 '에 대해 가능'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 지나가는 사람

들에게 '미술관의 일부분을 실제로 대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또 보이만스 반 뷔닝겐 미술관 Boijmans van Beuningen Museum에서 항구의 대형 창고를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층짜리 공공주택체를 대형 조각으로 제작해 전시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처럼 '잡'이라는 배경을 설정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집'은 단지 개인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에요. 집을 둘러싼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인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과연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엘 방문 전에 말한 '일련의 전시를 통해 지혜도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 지금의 환경, 즉 개인의 고유한 우주와 개인을 둘러싼 '이웃'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는 우주를 표현한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도시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중립을 수 없는 인구 양상이 낳은 각종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공동체가 변하면서 야기되는 문제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걸 해결해야 할 상황에 처했어요. 서울은 유럽과 좀 다르겠지만 유럽의 경우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이민자가 유입되었어요. 이 서울에도 고급 주택화와 관련된 사안이 있죠? 예를 들면 현재 강남의 모습은 20년 전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좁게는 이웃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해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의 같은 거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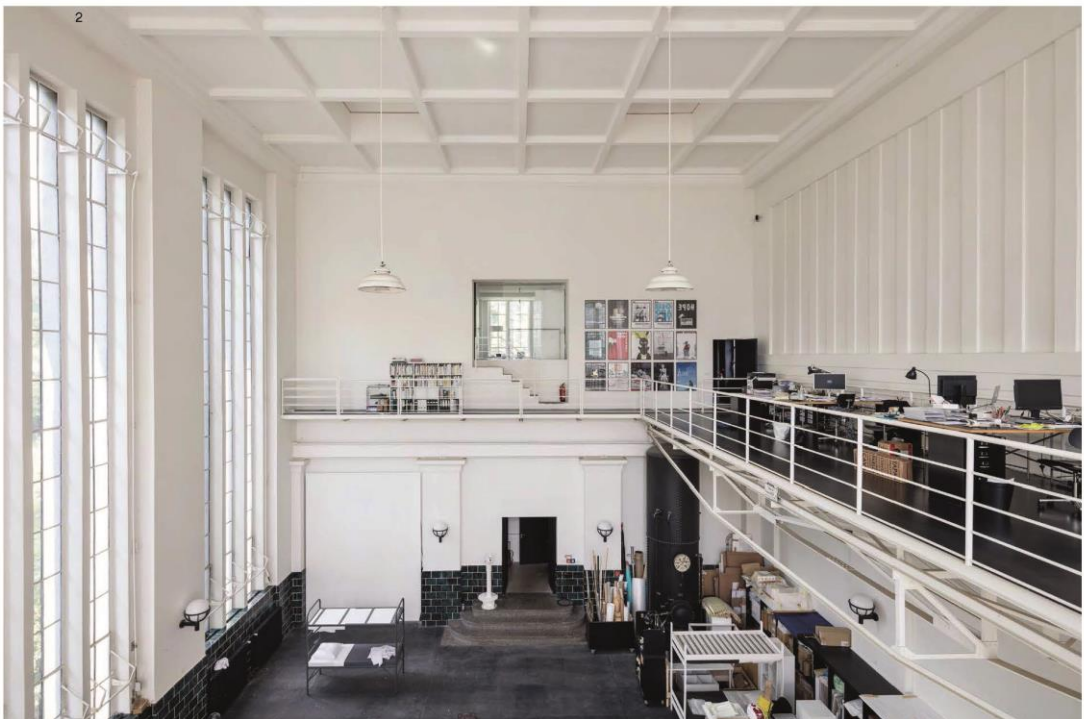
엘 좋은 이웃은 주변국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결정돼요. 한국의 경우에는 국경 문제, 즉 북한의 위험에 지



2008년 작품 '보이 스카우트 BOY SCOUT'을 중탕에 놓고 앞은 잉카 드라그셋, 직물 뒤는 타이클 웹블그린이다. '보이 스카우트 BOY SCOUT', METAL BUNK BED, FOAM MATTRESSES, SHEETS, PILLOWS, WOOLEN BLANKETS, 188x207-77cm, 2008



1 켈름그린과 도리그셋이 베를린으로 이주한 지 올해로 딱 20년이 되었고, 과거 레방수 시스템 공장을 개조한 지금의 스튜디오는 그들의 상징이 되었다. 2 스튜디오 내부는 천장을 높게 해서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스튜디오 전체가 흡수할 수 있게 했다. 별도의 조명을 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밝은 자연식 공간이다.





스튜디오 맨 위층에 마련된 휴식 공간. 엠블그린과 드래그셋의 컬렉션이 빈 공간을 채우며 조화롭게 놓여 있다.

속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번 '좋은 이웃'이라는 전시명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좋은 이웃은 아니잖아요.

전시명을 듣고 보니 꽤 정치적 견해가 담겨 있었네요. 의도적 메시지로 이해해도 될까요?

엘 작년 4월 큐레이터로 지명되었고 전시명을 '좋은 이웃'으로 하자고 결정했는데 같은 해 여름 영국이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데서 브렉시트 문제가 터진 거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영국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근엔 멕시코에 딱히 좋은 이웃이 아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또 터키에서 많은 내부 정치 문제로 인해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경제 문제 및 대량 실업 문제가 해놓을 수 없었네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훨씬 더 정치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에요. 불편한 곳을 건드리게 된 셈이죠. 하지만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정치적 이슈가 일어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거짓말 같죠. 한국 또한 작년과 올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반 그레도 그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을 담은 최근 작품이 '민주자들'이죠. 영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가상의 가족을 상징하고 이들의 새 보금자리를 제작해 선보였는데 너무 현실적이라 작은 에피소드가 들었어요.

엘 너무 현실 같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하기도 했던 작품이에요. 하하. 도시로 돌

이가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지역 신문에 기사로 냈는데,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당시 작품인 집 앞에 '매매 가능'이라는 안내판을 붙였는데 사람들은 이 가족이 도시로 돌아와 이 집을 실제로 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추가 기사를 내서 '이 상황은 실제가 아니라 가상이다'라고 설명해야 했어요.

그 전시 중 '높은 기대치 High Expectations'라는 작품의 전상이 오래 남았어요. 당신들의 작업에는 이처럼 남자들이 자주 등장해요. 주제의 매개체를 소년으로 잡는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엘 그 소년은 영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 기숙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교육을 입은 채 두려움에 떨면서 벽난로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죠. 그리고 머리 위로는 전도 유망해 보이는 소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을 표현한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은 부모가 준 선물이지 그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와 어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 소년의 현실을 대비해서 표현했어요. 기존 작품들에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해 논란 작품을 여럿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소년들이 강인한 남성으로 자리야 한다는 엄격한 기대치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K-팝 스타들만 봐도 전통적 남성성과 전혀 다른 소년들이 가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전통적 남성성을 감호하는 사회에 대한 불편함 또는 반발인가요?

엘 런던 트리플라 광장에 설치된 '회전목마를 타는 소

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맘을 타고 있는 많은 왕 조각상들 사이에 '회전목마를 타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왕 못지않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모습으로 말이에요. '높은 기대치'에서 볼 수 있는 소년의 초상화 또한 회전목마 위를 정형한 소년처럼 당당한 모습이죠. 또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시를 마친 '다이빙대 The Diving Board'라는 작품에서도 아래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소년이 과시하는 용감함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남성적 역할, 즉 영웅이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남성상을 우리는 여러 작품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독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소 특색적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장소'라는 공간적 차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 그라그셋 이와 드 공간은 우리의 주된 이슈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와 어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 소년의 현실을 대비해서 표현했어요. 기존 작품들에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해 논란 작품을 여럿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소년들이 강인한 남성으로 자리야 한다는 엄격한 기대치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K-팝 스타들만 봐도 전통적 남성성과 전혀 다른 소년들이 가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전통적 남성성을 감호하는 사회에 대한 불편함 또는 반발인가요? 런던 트리플라 광장에 설치된 '회전목마를 타는 소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맘을 타고 있는 많은 왕 조각상들 사이에 '회전목마를 타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왕 못지않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모습으로 말이에요. '높은 기대치'에서 볼 수 있는 소년의 초상화 또한 회전목마 위를 정형한 소년처럼 당당한 모습이죠. 또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시를 마친 '다이빙대 The Diving Board'라는 작품에서도 아래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소년이 과시하는 용감함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남성적 역할, 즉 영웅이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남성상을 우리는 여러 작품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독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소 특색적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장소'라는 공간적 차원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엘 그라그셋 이와 드 공간은 우리의 주된 이슈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와 어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 소년의 현실을 대비해서 표현했어요. 기존 작품들에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해 논란 작품을 여럿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소년들이 강인한 남성으로 자리야 한다는 엄격한 기대치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K-팝 스타들만 봐도 전통적 남성성과 전혀 다른 소년들이 가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전통적 남성성을 감호하는 사회에 대한 불편함 또는 반발인가요? 런던 트리플라 광장에 설치된 '회전목마를 타는 소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맘을 타고 있는 많은 왕 조각상들 사이에 '회전목마를 타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왕 못지않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모습으로 말이에요. '높은 기대치'에서 볼 수 있는 소년의 초상화 또한 회전목마 위를 정형한 소년처럼 당당한 모습이죠. 또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시를 마친 '다이빙대 The Diving Board'라는 작품에서도 아래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소년이 과시하는 용감함을 엿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남성적 역할, 즉 영웅이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남성상을 우리는 여러 작품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ELMGREEN & CRAIGSET AND VG BILD-KUNST, BONN 2017 / (PHOTO: VOLKER DOHRE HIE)

1 벨름그린&드러그셋 전시 <임주자들>(2017) 중 '수집가의 죽음'. MUSEUM HAUS LANGE, KREFELD, GERMANY. 2 같은 전시 속 임주자들의 아직 풀지 못한 창다이 맞선 곳으로 이사 온 사람들의 아직 열리지 않은 생경한 더듬과 물라ந்த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COURTESY OF THE ARTISTS



©ELMGREEN & CRAIGSET AND VG BILD-KUNST, BONN 2017 / PHOTO VOLKER DOHRE HIE

2

파 Prada Marfa> 전시가 비슷했어요. '프리다 스토어'가 주는 이미지가 자연과 상반되었기 때문에 생각해 낸 작업이었죠. 처음부터 자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만약 프리다 스토어가 그냥 서울 강남 한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너무 자연스러워서 프리다를 유의미한 시각으로 보기 힘들겠죠. 오보제를 그림시켜 완전히 다른 장소에 갖다놓으면서, 사람들에게 '이건 또 뭐야?'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해요.

엘 아외로 나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천 개의 물라토 공항> 전시에 대한 홍보 역시 전시장과 통떨어진 장소에서 진행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예술 전시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얼굴을 내밀어 '뭐지?' 하고 광고판을 확인하는 식이었어요. 공공장소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비틀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확실히 신선해져요.

단지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다음에 우린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 건가요?

엘 많은 사람들이 현대미술 전시를 보러 오면 현대미술의 비일관적인 상징, 은유 안에 감춰진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관객 스스로 자신에게 이 전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 전시를 그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죠. 만약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음,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현대미술도 이와 같이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들일 수록 현대미술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해요. 그들은 왜 이게 뭐지? 하며 호기심을 품고 미술 작품을 즐기기 때문이죠. 물론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가끔은 관객이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우리의 의도보다 더 흥미로울 때가 있거든요. 작품 제작 과정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해도 맞아요.

들의 역할은 작업 시 어떻게 나뉘나요? 역할 구분이 있다면 그게 작품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엘 우리는 항상 협업해요. 작가로서 우리의 정체성조차 서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죠. 서로의 세계에 상대방을 강제로 섞어넣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요. 다른 점이라면 만약 혼자 일하는 작가라면 마음에 드는 구상이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바로 작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서로의 의견을 묻고 예열하는 시간을 갖죠. 다르게 말하면 대화를 통해 한 번 '이디어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비엔날레 준비로 바쁜 기간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사상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나요?

드 작품 활동과 전시에 매진한 나머지 무엇이 쫓겨 있거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어요. 격변을 겪는 국가에서 전시를 여는 일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예술가로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술 작품을 통해 현대나 기계의 지배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대화를 지속시키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이러한 기초를 이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예술이나 음악처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 한데 모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죠. 하하.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예술은 단지 피상적인 활동으로 치부되었을 거예요. 예술을 통해 추상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물론 가끔은 좀 더 직접적이어야 하겠지만).

엘름그린도 같은 생각인가요?

엘 저의 경우는 좀 달리오. 정치가 점점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대신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워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전보다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개척하는 모습에서 더 밝은 미래를 찾아요. 이런 게 더 희망적이고 재미있지 않나요?

드 아, 덧붙이자면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당연하겠지만 이스탄불 비엔날레예요. 레바논, 이라크, 남아공은 물론이고 한국 작가의 참여도 독려하는 중이에요. 다양한 작가의 접촉하고 설득하는 작업의 연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죠. H

DESIGN 김민정



© FELIX RUOS

백난초에 기반 채 두러움에 떨고 있는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 그리고 이를 통해 전통적 남성상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를 대배적으로 표현한 작품 '높은 기대치'.